

# “尹 무너뜨리는데 단 11일”...외신도 놀란 ‘빨리빨리’ 문화

### 블룸버그 한국 내란정국 조명...“경제성장 이룬 ‘palipali’ 도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시작으로 불과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과정을 두고 그간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도 꼽혔던 ‘빨리빨리’ 문화가 다시 드러났다는 외신 진단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한국의 ‘빨리빨리’(Hurry Hurry) 문화가 도움을 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정국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신속함을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계엄 선포 후 채 2주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최근 몇년 간 효율성 극대화과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문화를 암시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어로는 ‘빨리빨리’(palipali) 문화라고 소개하고, 이같은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했을 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에 오르고 산업, 정치, 대중문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줬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수십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성공 배경에도 창의적인 파괴와 대담한 변화를 수용하는 이러한 정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국가 재건 사업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본의 점령에서 벗어나 북한과 전쟁에서 살아

남았으며, 빈곤한 농업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로 변화시키며 국내총생산(GDP)이 50년 전의 85배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빨리빨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급속 성장을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이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빨리빨리’ 문화가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인들은 단결해 반발하는 데에 어떤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 거리로 쏟아져나와 응원봉을 들고 K팝 히트곡에 맞춰 춤을 췄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블룸버그에 “빨리빨리 문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면서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에 부작용과 부정적인 함의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빨리빨리’는 인내와 생존을 내포하는 감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한국인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에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우리는 매우 열정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강한 집착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 가자휴전 ‘수일내’ 타결 관측...바이든 막판 중재 ‘속도’

### 카이로·도하 등서 협상 급물살

14개월째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가자전쟁에서 그간 얽히다 풀려나던 휴전협상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막판 중재 움직임 속에 ‘수일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휴전협상과 관련된 소식통들을 인용해 앞으로 수일내 가자전쟁 휴전 및 인질석방을 놓고 합의가 체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 당국자와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이 합류했으며, 다음달 퇴임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 중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집트 측 안보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17일 밤에 다음 단계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조건 추가”를 멈춘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이날 “진지하고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점령군(이스라엘군)이 새로운 조건 추가를 중단한다면 휴전과 포로 교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라고 말했다.

다른 하마스 소식통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도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합의에 매우 근접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전날 크네세트(이스라엘의 단원제 국회) 외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지난번 합의(작년 11월 휴전) 이래 인질 협상이 이번처럼 합의에 근접한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CNN은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협상단이 도하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협상단에서는 정보 기관 모사드와 산베타 측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도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답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말한 것처럼(휴전 협상에) 점점 더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낙관론에는 신중하다. 전에도 여기까지 왔으나 타결되

지 못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기 전 가자전쟁 휴전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최근 분주히 움직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12일 중동 순방을 시작한 데 이어 제이코 셉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스라엘에 파견됐다.

아울러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 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국 당국자들이 협상 타결이 아직 성사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낙관적인 태도로 선회하는 것은 타결에 상당한 동력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외교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협상 내용은 휴전을 여러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첫 단계는 6주이며, 이기간 하마스가 여성과 노인, 부상자를 포함한 인질 다수를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수백명을 석방한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휴전이 이뤄진 적은 작년 11월 한 차례 1주간 있었다. /연합뉴스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

### 북한 인권침해 규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결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정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결의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북한인권결의안의 제3위원회 통과 이후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